주요개념 : 지각(perception)

#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박 문 희* · 이 애 란**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행위와 태도는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족 환경은 아동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최초의 생활 환경이다. 특히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은 성장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분만 직후 모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김, 1993 ; 김, 1990 박, 1984 ; 한, 1991).

모자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이였다. 1940년대 제 2차 세계 대전 중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있었던 아동의 행위에 촛점을 맞추어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후 30년간 어머니와 떨어진 후 아동의 행동 특성에 대한 관찰이 계속 이루어 졌다 (Aimsworth, 1979 ; Bowlby, 1973). 1970 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조직적으로 기술한 연구 보고서가 출판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가진 54명의 중류 계층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산모의 긍정적 감정 표현을 웃음과 눈 맞춤등으로 분류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생아와 산모와의 친밀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신생아에 대한 산모의 첫 긍정적 감정 표현 시기는 출산 후 2일에서 3개월 까지이고 웃음과 눈 맞추기 등이 모자간의 친밀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 졌다(Robson, 1970).

Klaus 와 Kennel(1972)은 모자 간의 감정 발달 과정에서 생후 몇 분과 한시간 내의 민감한 시기에 강한 관심을 쏟으면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 관계가 다른 시기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친밀한 피부 접촉이 애착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생후 초기의 신생아는 수동적인 유기체로서 그의 행위는 어떤 일정한 양식이 없고 무질서하다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신생아가 능동적인 유기체로서 그의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수면과 수유 이상의 많은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신생아는 출생시부터 다양한 행위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자극에 대하여 다양하게 자신을 노출시킨다. 개개의 신생아는 체형 뿐 아니라 자신의 환경 내의 사람과 사물에 반응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법 역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어머니가 신생아의 암시와 신호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모자 상호 작용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반영되어 모자 상호 작용 체계의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김, 1993).

박(1991)은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전환 과정 연구에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원광 보건 전문대학 간호학과

서 출산 후 10일을 발견기라 명하면서 오직 아기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아기를 발견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모성 역할 수행 내용을 보면 아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신체적 건강과 안위를 위한 돌봄 활동들로 구성되며, 엄마의 돌봄 활동은 먹이고, 재우고, 배설, 자세 유지 등과 관련된 아기의 생물학적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므로(Sander,1962), Shereshefsky와 Yarrow(1974)는 신생아기 모성 역할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내 모자 동실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신생아를 분만한 초산모가 신생아를 지각하는 정도와 모자 동실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종합 병원에서 초산모가 신생아를 지각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현 상황에 따라서 초기 모자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긍정적인 모자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른 아기와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2)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1) 다른 아기와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 ). 전반적인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 아기의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 아기를 돌보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아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지각을 비교한다.

## Ⅱ.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한 민국 C시와 I시의 종합 병원에서 첫째 아기를 분만하고 산과에 입원하고 있는 분만 2-3일된 초산모 86명과, 미국 Georgia 주 Emory Crawford Long Hospital과 Sourthern Regional Medical Center에서 첫째 아기를 분만한 초산모 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한국에서의 종합 병원은 산과 병실과 신생아실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적어도 출생후 2-3일은 어머니와 아기가 분리되어 있어 어머니는 아기를 직접 만지거나 젖을 먹이고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미국의 종합 병원에서는 모자 동실이 이루어 지고 있어 산과 병실에 작은 아기용 침대가 놓여 있고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며 수유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1963년 Elsie Broussard가 개발한 신생아 감지 평가 도구를 이자형(1986)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신생아 지각 도구(Neonatal Percep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 계수(Cronbach's alpha)는 0.78이었다. 총 문항은 30문항으로 다른 아기에 대한 산모의 인식 15문항, 자기 아기에 대한 인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최고 점수는 75점, 최저 점수는 15점으로 분포한다. 문항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 6개 문항과 부정적인 것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점수의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문항의 내용으로 보아 높은 점수일 수록 아기의 욕구가 많으며 아기를 보살피기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항의 내용에 따라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5문항) 아기의 감각 운동에 대한 지각(5문항) 아기를 간호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4문항), 그외(1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다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의 차이(다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를 산출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지각으로 판정하였는데,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판정이 긍정적(+)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바람직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고, 부정적(-)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바람직하지 않게 지각하는 것으로써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이 불충분하며, 아동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3. 자료 수집 방법

한국에서는 1994년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C시와 I시의 종합병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동년 7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Georgia 주의 2개 종합병원에서 수집되었다. 한국에서는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산모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하며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도와 주며 수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던 간호사가 산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 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 하였으며, t-test, One way Anova로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지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에 따라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 아기를 돌보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표 1-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 특성 | | 한국(%) | 미국(%) |
|---|---|---|---|
| 연령 | 20세 이하 | 2( 2.3) | 21(24.4) |
| | 21-25 | 20(23.2) | 37(43.0) |
| | 26-30 | 54(62.7) | 12(13.9) |
| | 31세 이상 | 10(11.6) | 12(13.9) |
| 직업 | 무 | 69(80.2) | 37(43.0) |
| | 유 | 15(17.4) | 40(46.5) |
| 학력 | 중졸 | 4( 4.6) | 3( 3.4) |
| | 고졸 | 43(50.0) | 38(44.1) |
| | 대졸 | 39(45.3) | 43(50.0) |
| 수유형태 | 모유 | 0 | 24(27.9) |
| | 혼합 | 0 | 26(30.2) |
| | 분유 | 86(100) | 35(40.6) |
| 총 인수 | | 86 | 86 |

연령은 한국 초산모의 경우 20세 이하는 2.3%에 불과하나 미국 초산모는 24.4%에 이르고 있어 미국에서의 조기 분만의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한국 초산모는 62.7%가 26-30세에 분포하고 있었다.

한국 어머니는 80.2%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미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43.0%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학력은 한국과 미국 어머니가 중졸은 4% 수준으로 많지 않았으며, 고졸,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유 형태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머니는 전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분만 후 엄마와 아기가 각각 산과와 신생아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엄마와 아기가 모자 동실을 하고 있으므로 엄마의 의사에 따라 모유 수유는 27.9%, 혼합 영양은 30.2%, 분유 수유는 40.6%의 분포를 보인다.〈도표 1-1〉

〈표 1-2〉 초산모의 연령에 따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연령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 |
|---|---|---|---|---|---|---|
|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 20세 이하 | 23 | 38.17 | 7.04 | | |
| | 21-25세 | 57 | 40.28 | 5.82 | 2.98 | 0.03** |
| | 26-30세 | 66 | 42.16 | 6.26 | | |
| | 30세 이상 | 22 | 42.46 | 6.40 | | |
|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 20세 이하 | 23 | 38.34 | 6.39 | | |
| | 21-25세 | 57 | 37.08 | 6.83 | 3.58 | 0.01*** |
| | 26-30세 | 66 | 40.25 | 6.13 | | |
| | 31세 이상 | 22 | 41.40 | 6.54 | | |
| 긍적-부정적 지각 | 20세 이하 | 23 | 부정(38.17-38.34) | | | |
| | 21-25세 | 57 | 긍정(40.28-37.08) | | | |
| | 26-30세 | 66 | 긍정(42.16-40.25) | | | |
| | 31세 이상 | 22 | 긍정(42.45-41.40) | | | |

**P<0.05 ***P<0.01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을 보면 20세 이하의 초산모가 38.17점, 31세 이상의 초산모가 42.45점으로 엄마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5). 또한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20세 이하의 초산모는 38.34점이고 21-25세의 초산모는 37.08점인 반면, 31세 이상의 초산모는 41.40 점으로 역시 엄마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또한 20세 이하의 초산모의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는 38.17점인데 자기 아기에 대한 점수는 38.34점으로써 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것으로 밝혀 졌으나, 21세 이상의 초산모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1-2)

〈표 1-3〉 초산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직업 유무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 |
|---|---|---|---|---|---|---|
|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 무 | 106 | 41.44 | 6.21 | 1.08 | 0.28 |
| | 유 | 55 | 40.21 | 7.12 | | |
|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 무 | 106 | 38.75 | 7.02 | -0.67 | 0.50 |
| | 유 | 55 | 39.47 | 6.20 | | |
| 긍정-부정적 지각 | 무 | 106 | 긍정(41.44-38.75) | | | |
| | 유 | 55 | 긍정(40.21-39.47) | | | |

다른 아기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는 초산모가 41.44점, 직업이 있는 초산모가 40.21점이며,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는 초산모가 38.75점, 직업이 있는 초산모가 39.47점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도표 1-3〉

〈표 1-4〉 초산모의 학력에 따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학력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 |
|---|---|---|---|---|---|---|
|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 중졸 | 7 | 45.00 | 3.60 | 1.63 | 0.19 |
| | 고졸 | 81 | 40.54 | 6.37 | | |
| | 대졸 | 82 | 41.36 | 6.75 | | |
|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 중졸 | 7 | 45.42 | 4.03 | 4.68 | 0.01*** |
| | 고졸 | 81 | 38.06 | 6.63 | | |
| | 대졸 | 82 | 39.65 | 6.46 | | |
| 긍정-부정적 지각 | 중졸 | 7 | 부정(45.00-45.42) | | | |
| | 고졸 | 81 | 긍정(40.54-38.06) | | | |
| | 대졸 | 82 | 긍정(41.36-39.65) | | | |

***P<0.01

다른 아기에 대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5.00점이고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1.36점으로써 중학교를 졸업한 엄마의 점수가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5.42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39.65점으로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P<0.01).

또한 중학교을 졸업한 초산모는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45.42점이고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45.00점으로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높으므로 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다.〈도표 1-4〉

다른 아기에 대해서 분유를 먹이는 초산모는 41.48점, 모유를 먹이는 초산모는 41.12점, 혼합 영양을 하는 초산모는 38.61점으로, 모유와 분유를 먹이는 엄마의 경우 혼합 영양을 하는 엄마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가 있다(P<0.1).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분유를 먹이는 초산모가 39.51점, 모유를 먹이는 초산모가 38.45점, 혼합 영양을 하는 초산모가 37.96점으로써 분유를 먹이는 엄마가 모유나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엄마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 1-5〉 초산모의 수유 형태에 따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수유형태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 |
|---|---|---|---|---|---|---|
|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 모유 | 24 | 41.12 | 5.54 | 2.69 | 0.07* |
| | 혼합 | 26 | 38.61 | 7.52 | | |
| | 분유 | 120 | 41.48 | 6.23 | | |
|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 모유 | 24 | 38.45 | 6.54 | 0.72 | 0.48 |
| | 혼합 | 26 | 37.96 | 6.40 | | |
| | 분유 | 120 | 39.51 | 6.70 | | |
| 긍정-부정적 지각 | 모유 | 24 | 긍정(41.12-38.45) | | | |
| | 혼합 | 26 | 긍정(38.61-37.96) | | | |
| | 분유 | 120 | 긍정(41.48-39.51) | | | |

*P<0.1

또한 모유 수유, 혼합 영양, 분유 수유 초산모 모두가 자기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1-5〉

## 2.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표 2-1〉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다른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P |
|---|---|---|---|---|---|---|
|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 | 한국 | 86 | 43.11 | 5.94 | 4.21 | 0.00*** |
| | 미국 | 86 | 39.15 | 6.40 | | |
|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 한국 | 86 | 15.23 | 2.67 | 2.33 | 0.21 |
| | 미국 | 86 | 14.32 | 2.41 | | |
| 아기의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 | 한국 | 86 | 13.00 | 3.58 | 0.71 | 0.47 |
| | 미국 | 86 | 12.59 | 3.93 | | |
| 아기 간호시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 한국 | 86 | 13.18 | 2.54 | 7.85 | 0.00*** |
| | 미국 | 86 | 10.27 | 2.30 | | |

***P<0.01

다른 아기에 대해서 한국의 초산모는 43.11점, 미국의 초산모는 39.15점으로 한국의 어머니가 높은 점수를 보이며 두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기의 욕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초산모는 15.23점, 미국의 초산모는 14.32점으로 차이가 없으며, 아기의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초산모는 13.00점, 미국의 초산모는 12.59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아기 간호시의 어려움을 비교할 때 한국의 초산모는 13.18점, 미국의 초산모는 10.27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P<0.01). 이

는 한국의 어머니와 미국의 어머니가 아기의 욕구나, 감각-운동 능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막상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있어서는 한국의 초산모가 미국의 초산모에 비해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도표 2-1〉

〈표 2-2〉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P |
|---|---|---|---|---|---|---|
|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 | 한국 | 86 | 40.34 | 6.85 | 2.48 | 0.01*** |
| | 미국 | 86 | 37.89 | 6.11 | | |
|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 한국 | 86 | 15.23 | 2.67 | 2.33 | 0.21 |
| | 미국 | 86 | 14.32 | 2.41 | | |
| 아기의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 | 한국 | 86 | 13.00 | 3.58 | 0.71 | 0.47 |
| | 미국 | 86 | 12.59 | 3.93 | | |
| 아기 간호시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 한국 | 86 | 13.18 | 2.54 | 7.85 | 0.00*** |
| | 미국 | 86 | 10.27 | 2.30 | | |

***P<0.01

자기 아기에 대해서 한국의 초산모는 40.34점, 미국의 초산모는 37.89점으로 한국의 어머니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을 비교할 때 한국의 초산모는 15.23점, 미국의 초산모는 14.32점으로 차이가 없으며, 아기의 감각-운동에 관한 지각은 한국의 초산모가 13.00점, 미국의 초산모가 12.59점으로 차이가 없으나, 아기 간호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국의 초산모가 13.18점, 미국의 초산모가 10.27점으로 큰 차이가 있다(P<0.01).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기에 대해서도 아기의 욕구나 감각-운동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초산모와 미국의 초산모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아기를 돌보는데 있어서는 한국의 초산모가 미국의 초산모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도표 2-2)

아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지각을 비교하면 한국의 초산모는 69.7%가 긍정적이고 30.3%가 부정적인 반면, 미국의 초산모는 44.1%가 긍정적이고 55.9%가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을 볼 때 한국의 어머니는 58.1%가 긍정적이고 미국의 어머니는 40.6%만이 긍정적이며,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면 한국의 어머니는 46.5%가 긍정적이고 미국의 어머니는 40.6%만이 긍정적이다. 또한 간호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머니가 52.3%에서 긍정적 지각을 가지며 미국의 어머니는 26.7%만이 긍정적 지각을 갖는다.(도표 2-3)

〈표 2-3〉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지각 비교 (총수=172)

| 구분 | | | 실수 | % |
|---|---|---|---|---|
|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 | 한국 | 긍정 | 60 | 69.7 |
| | | 부정 | 26 | 30.3 |
| | 미국 | 긍정 | 38 | 44.1 |
| | | 부정 | 48 | 55.9 |
|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 한국 | 긍정 | 50 | 58.1 |
| | | 부정 | 36 | 41.9 |
| | 미국 | 긍정 | 35 | 40.6 |
| | | 부정 | 51 | 59.4 |
| 아기의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 | 한국 | 긍정 | 40 | 46.5 |
| | | 부정 | 46 | 53.5 |
| | 미국 | 긍정 | 35 | 40.6 |
| | | 부정 | 51 | 59.4 |
| 아기 간호시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 한국 | 긍정 | 45 | 52.3 |
| | | 부정 | 41 | 47.7 |
| | 미국 | 긍정 | 23 | 26.7 |
| | | 부정 | 63 | 73.3 |

## Ⅳ. 논 의

###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어머니가 아기와 그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초기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부모와 아기와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준다(Barabach, 1992). 국내에서는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유방법, 신생아의 성별, 모자 동실, 유산 경험, 분만 횟수, 지지적 간호 등이 보고되었으며 (박, 1984 ; 이, 1986 ; 정, 1985), Mercer와 Hackly(1983)는 배우자 지지, 신생아와의 조기 접촉, 분만 형태, 교육 수준, 임신과 분만 횟수, 산후 합병증을 포함한 모성 질병등으로 인한 출산 경험의 인식 여부가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 연령의 분포가 다양하여 20세 이하의 초산모가 23명(26.7%)이었고 31세 이상의 초산모도 22명(25.5%)이었는데, 특히 20세 이하의 초산모 중 21명이 미국 어머니로써 미국에서의 조기 분만의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21세 이상의 초산모는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으나 20세 이하의 초산모는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38.17점,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38.34점으로써 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1984)가 10대의 연령층은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나 아기를 위하여 걱정스러운 연령층으로써 통계적으로 보면 혼외 임신이나 사춘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위험도가 2배나 높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초산모 중에서는 2명(2.3%)만이 20세 이하의 초산모이었으나 앞으로 조산, 조혼의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춘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초산모는 17.4%, 미국의 초산모는 46.5%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초산모의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없다고 분석되었으며 조(199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나,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한 시점이 분만후 2-3일이므로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성 전환 과정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력에 따른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는 일반 아기에 대해서 45.00점, 자기 아기에 대해서 45.42점이며,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는 일반 아기에 대해서 41.36점, 자기 아기에 대해서 39.65점으로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초산모는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으나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신생아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아기를 돌보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박(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교육 및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과 빈도가 높다고 하였고(Wright & Walker, 1983), Jacobson (1991)은 자아 성숙도가 높고 지적 능력이 높은 여성에게서 모유 수유 빈도가 높고 기간이 길며 부모 기술(Paranting skill)도 좋다고 하였으나, 국내의 연구 자료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모유 수유 빈도가 낮고 기간이 짧다고 한다(변, 1994 ; 오, 1994). 미국에서는 1971년 쯤 조제 분유가 대중화 되었을 때 24.9%의 여성이 모유 수유를 했으나 그 이후로 모유 수유에 대한 경향이 역전되어 1980년대에는 64%로 상승하였다가 대중매체에서 분유 광고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1989년에는 52.2%로 하강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55.9%로 상승하였다(Hoekelman, 1992).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 발전, 지역 또는 소득 계층에 따라 모유 수유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76년 농촌에서는 모유 수유율이 95.1%였는데 1980년에는 81.7%로 저하되었고 (민, 1980), 1993년에는 모유 수유가 28.4%, 모유와 우유를 섞여 먹인 경우가 41.3%이며 모유 수유 기간은 모유 수유 엄마의 47.3%가 12주 미만이었다(권, 1993). 즉 미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모유 수유에 대한 연구와 실무가 행해지며 모유 수유 상담자까지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 다른 친척, 친구 등 비 전문가의 피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내용일 뿐 조직적인 지도가 거의 없는 형편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김, 199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의 100% 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분만 후 2-3일은 모자 동실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써 아기를 직접 안아보고 수유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자 동실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초산모는 24%가 모유 수유를 실시하고, 26%는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 형태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어머니는 다른 아기에 대해서 41.12점,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38.45점이나, 인공 영양을 실시하는 어머니는 다른 아기에 대해서 41.80점,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39.51점이며, 수유 형태에 상관없이 초산모는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도한 시점이 분만 후 2-3일이므로 병원에서 퇴원하여 산모가 직접 수유를 실시하는 과정동안에 이러한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Dunn & Richard(1977)는 모유 수유 어머니는 인공 수유 어머니보다 상호 관계에 몰두하며 모아 상호 행위 점수가 높다고 주장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1984)은 모유 영양을 계획하고 젖을 빨리려는 노력이 모자간의 접촉과 유대를 촉진하여 모유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는 신생아실에서 젖병으로 포유한 인공 영양군의 산모보다 신생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갖는다면서 모든 병원에서는 산모에게 모유 영양을 권장

하여 정서적인 유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산모가 직접 수유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조(1991)은 신생아와의 접촉 시간이 길수록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수정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신생아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적극기인 산후 2-3일경에 1시간 이상 모아 접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분만후 모자 동실을 실시한 그룹은 44.4%가 모유수유를 실시하였으나 모자 동실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은 18.5%만이 모유수유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며, 송(1993)은 분만 후 초기 병원에서의 수유 방법이 모유 수유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2.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Choi(1984)는 미국 거주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한 영아의 행동과 모아 상호 작용의 차이에 대한 횡문화적 연구에서 미국인 영아에 비해서 한국인 영아가 훨씬 더 빨리 습성화(Habituation)되고 미국인 영아는 의식 상태의 조절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여 주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초산모는 69.7%가 긍정적이고 미국의 초산모는 44.1%만이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다.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판정이 긍정적(+)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바람직하게 지각하고 있는것이고, 부정적(-)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바람직하지 않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의 박(1984)의 연구에서는 7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1986)의 연구에서는 75%, 김(1990)의 연구에서는 82.5%가 긍정적이었으며, 미국의 Broussard(1976)의 연구 결과는 46.5%가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아기의 욕구에 관한 지각은 한국의 초산모가 58.1%, 미국의 초산모가 40.6% 긍정적이고, 아기의 감각-운동에 관한 지각은 한국의 초산모가 46.5%, 미국의 초산모가 40.6% 긍정적이고, 아기 간호시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은 한국의 초산모가 52.3%, 미국의 초산모가 26.7%가 긍정적이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초산모가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oussard(1976)에 의하면 최적의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에 대해 확실히 이상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신생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른 아기에대해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극히 높은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제 아동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유념 해야 한다고 이(1986)는 주장하는데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임부는 자신의 신생아에 대해 임신 기간 중 기대를 가지며 환상과 소망이 분만을 계기로 현실로 바뀌어 기대와 현실이 부합되면 어머니로서의 행동은 고무적이 되며 모아 관계가 만족되고 보상을 느끼며 자신의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반대로 기대와 현실이 부합되지 못하면 신생아에 대해 흥미를 잃고 부모로써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으로 죄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Clark, 1976). 이(1994)의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만 후 초기에 76.7%가 긍정적이었으나, 신생아가 퇴원하여 가정에서 1 개월 양육한 후 조사된 자료를 보면 66.7% 만이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는데 이는 신생아를 직접 돌보면서 오히려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양상이며 위의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초산모는 자기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으나 막상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각하는데, 이는 분만 후 2-3일에는 모자 동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산모들이 막연하게 아기에 대한 상상을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신생아를 직접 보살피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다른 아기들보다 자기 아기가 좋은 상태일 것이라는 상상은 오히려 엄마와 아기의 상호 관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유념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초산모는 미국의 초산모에 비해서 일반적인 아기보다 자기 아기를 바람직하게 지각하고는 있으나, 한국의 초산모가 분만 2-3일경에 엄마가 아기를 직접 관찰하고 안아주거나 젖을 먹이는 등의 상호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1992)도 초산모의 간호 중재를 위해서 좀 더 활발한 아기 양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아기를 낳고난 직후에는 병원에서 직접 간호사가 시범을 보인 후 어머니가 실제로 모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분만 후에도 아기 양육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도록 모자동실의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남(1994)은 모유 수유 의지의 주된 결정 요인

은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각된 행위 통제이므로 이러한 통제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우선 초산모가 분만하기 전에 아기 양육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분만 후에는 모자 동실이 실시되어 아기와 엄마의 접촉 시간을 많이 갖을 수 있고 모유 수유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모자 동실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초산모와 모자 동실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종합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한 한국의 초산모가 신생아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와 내용을 비교하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긍정적인 모자 관계 형성을 위한 간호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994년 5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초산모 각각 86명씩을 대상으로 Broussard(1963)가 개발하고 이자형(1986)이 수정 보완한 신생아 지각 도구(Neonatal Perception Inventory)를 사용하여 분만 후 2-3일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에 따라서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5$, $P<0.01$). 20세 이하의 초산모는 신생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다.
2. 초산모의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없으며 긍정적인 지각 갖는다.
3. 학력에 따라서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신생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다.
4. 수유 형태에 따라서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긍정적인 지각을 갖는다.
5. 한국의 초산모와 미국의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한국의 초산모는 69.7%, 미국의 초산모는 44.1%가 신생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초산모는 아기를 돌보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의 초산모는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기를 보살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만 전에는 모성 수행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분만 후에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모자 동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권숙희 외(1993). 모유 수유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 간호 학회지, 3(2), 172-186.

권미경, 한경자(1991).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 상호 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 학회지, 21(1), 79-88.

김소라 외(1993). 초산모의 산욕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 작용 양상. 이화 간호 학회지, 26, 22-37.

김태임(1990).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 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 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김혜숙(1993). 모유의 신비. 에드텍

김혜숙(1995). 모유 수유 전화 상담 내용의 분석. 대한 간호 학회지, 25(1), 17-29.

남은숙(1994).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 수유 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민혜성(1980). 농촌 수유아의 모유 수유 실태 조사, 최신 의학, 23(8), 10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전환 과정.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박영숙, 변희재(1984). 신생아에 대한 산모의 감지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 학회지, 14(1), 50-59.

박옥희(1992). 임신중 유방 간호가 산모의 모유 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간호학회지, 22(1), 29-41.

방경숙, 한경자(1991). 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산모의 모아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 학회지, 21(2), 150-167.

변수자 외(1994). 수유 형태와 모유 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 간호학회지, 4(1), 68-79.

성옥희(1979). 모유 수유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 대학교 보건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송지호 외(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 간호 학회지, 3(2), 153-165.

오현이 외(1994).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 모자 간호학회지, 4(1) 68-79.

유신애, 안창일(1984).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산전 간

호와 육아에 대한 관심도 현황 비교 관찰. 소아과, 26(3), 35-44.

서안진(1982). 육아론. 문음사, 65.

이자형(1986).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사정 도구. 대한 간호 학회지, 16(3), 67-77.

이자형(1994). 고 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지각과 정서. 대한 간호 학회지, 24(4), 557-567.

이혜경(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역할 획득 모형 구축. 서울 대학교 대학원박사 학위 논문.

이혜경, 전동희(1986). 신생아에 대한 산모의 감지도에 관한 연구. 충남 의대 잡지, 13(2), 427-436.

장순복(1990). 모유 수유에 따른 초산모와 신생아의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3, 30-40.

정광희, 노현신(1985).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감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 부속 간호 전문대 논문집, 8, 169-179.

조결자(1990). 모아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 29(5), 54-67.

조수현, 이영숙(1991).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애착 행위와의 관계. 전남 의대 잡지, 28(1), 85-97.

한경자(1991).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 작용 행동 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 간호 학회지, 21(1), 89-116.

Aimsworth M. D.(1979). Mother-infant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4, 932-937.

Barabach, L. H. & Glazer, G.(1992). Maternal perception & parant-infant interaction of vulnerable cocain-exposed couplets. Journal of Perinat Neonatal Nurse, 6(3), 76-84.

Bowlby J.(1973).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Broussard E. R. (1976). Neonatal prediction and outcome at 10/11 yea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7(2), 85-93.

Choi, E. S. C. & Hamilton, K. R.(1984). The effects of culture on mother-infant interaction (Presented at the Sigma Theta Tau conferance in Seoul, Korea).

Clark, A. L. & Affonse, D. D.(1976). Infant behavior and maternal attachment : Two sides to the coin. M. C. N., 1(2), 94-99.

Dunn J. B. and Richards M. P. M.(1977). Observations on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baby in the neonatal period. Canadian Nurse, 79 : 8, 28-31.

Hoekelman, R. A.(1992). Highs and lows in breast feeding rates. Pediatric Annuals, 21(10), 615-617.

Jacobson, S. W.(1991). Incidence and correlates of breast feeding in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woman. Pediatrics, 88(4), 728-736.

Mercer, R. T. & Hackly, K. C.(1983).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and perinatal variables to perception of childbirth. Nursing Research, 32(4), 202-207.

Mussen, P. H. and Conger, J. J.(196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rd Ed.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

Robson K. and Moss H.(1970). Patterns and determinates of maternal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s, 976-986.

Sander, L. W.(1962). Issues in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 141-166.

Shereshefsky, P. M. & Yarrow L. J.(1974). Psychological aspects of first pregnancy and early postnatal adaption. New York : Raven Press.

Tulman, L. J.(1981). Theories of maternal attachman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 (4), 7-14.

Wright, H. J. & Walker, P. C.(1983). Prediction of duration of breast feeding in primipara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7, 8-94.

-Abstract-

## Perceptions of Primiparas of their Newborns : A Comparision of Koreans and Americans

*Park, Mun Hee* · Lee, Ae 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Korean and American women as to the perception of their newborns, and to assess factors contributing to a positive mother-infant relationships. American mothers were with their own newborns in the same rooms and could feed and take care of them if they wanted, but Korean mothers were separated from their bab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6 Korean and 86 American primiparas within two-three days after deliver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August 1994, using the Neonatal Perception Inventory (NPI) devised by Broussard(1963) with additions by Lee, Ja Hyung(198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according to mothers' age($P<0.05$, $P<0.01$). Mothers of 20 years and downward had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babies.
2.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according to whether they had a job or not.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s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level($P<0.01$). Mothers graduated from a junior high school had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babies.
4.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ir feeding pattern.
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mothers' perceptions and American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babies($P<0.01$). 69.7% of Korean mothers and 44.1% of American mothers had positive perceptions. But Korean mothers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their babies.

As seen above, Korean primiparas evaluated their babies higher than Americans. But they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their babi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needs a rooming-in system and systematic prenatal educations for the primiparas in Korea.

* Dep.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nbuk National Uuniversity

**WonKwang Public Health Junior College